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협력업무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분쟁·업무부실 발생, 국민만 피해

##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건축단체, 건축구조 분리발주 반대 공동성명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한목소리로 법안 철회 촉구  
LH 사고 비롯한 건설안전 사고는 저가수주 경쟁, 감리 독립성 결여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결과, 구조설계 분리로 건축물 안전 해결 불가

건축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강대  
식 의원 대표발의)된 건축구조 분리  
발주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  
사를 분명히 했다. 또 단체 간 논의  
도, 주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

라며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했다.  
건축단체가 반대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24658)'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시 건축구  
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  
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

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  
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1월 9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  
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  
울건축포럼은 이날 건축사회관 대강당  
에 모여 2만7천여 명의 건축사와 50만  
명의 건축인을 대표해 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  
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3면 계속



11월 9일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전문가 6단체가 건축사회관에 모여 졸속입법인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 '민간대가 법제화'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돼... '설계비 현실화'에 전사적 역량 집중

협회, 정부·국회에 '입법 당위성' 강조·설명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설계품질 저하, 부실 공사감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 "건축서비스 대가, 투명·적정하게  
규정해 설계·감리 품질, 건축물 안전 확보해야"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  
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축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발의됐  
다. 김학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  
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3명  
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의실에 따르면, 건축  
사법 개정안에는 공공발주 건축사업무  
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  
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학용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을 활  
용·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발주 대가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  
고 건축서비스산업 70% 이상을 차지하  
는 민간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는 저  
가 경쟁으로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 공

사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  
가 되고 있다"며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  
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  
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  
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았  
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당위성  
을 정부·국회에 설명하고, 국토부와의  
민간부문에 대한 건축물 설계도서의  
적정 품질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건축사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① -----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
1. 국가	<삭제>
2. 지방자치단체	<삭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삭제>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자료=김학용 국회의원의실

midas CAD

마이다스캐드, 추천만 해도 무료로 캐드를 받을 수 있다?

# 지인추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혜택**

추천인 & 피추천인  
**캐드 추가 증정**

**참여 방법**

1. 마이다스캐드 유저에게 마이다스캐드를 추천 받는다.
2. 추천 받은 고객은 좌측 QR 코드로 구매한다.
3. 구매 시 추천인을 기입한다.
4. 추천인과 추천 받은 사람 모두, 캐드 추가 증정을 받는다.

\* 추천인은 마이다스캐드 기준 고객 한정입니다.

구매하기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세요

www.midasCAD.com | Tel. 010-2769-2091 (박수인 프론트)

## 2024년도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대한건축사협회가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접수를 받는다.

APEC 등록건축사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등록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APEC 등록건축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APEC 등록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에 한하여 국가 간의 건축서비스 제공 장벽을 완화, 건축사의 이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Architect Project Monitoring Committee)는 APEC 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APEC등록건축사 자격에 관한 심의, 중앙이사회와 정보교류·의사소통 등 APEC 등록업무 관련 사항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추진위원회와 중앙이사회 협의·의결과정을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심사·등록 절차를 개시했다.

자세한 안내는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02-3415-6828) 장영호 기자

## 회원 편익 증진 방점, 건축사회관 1층 '아카이브라운지'에 북카페 운영



1층 아카이브라운지 당선작 설계=황정은 건축사(제이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1층 아카이브라운지에 북카페가 들어선다.

건축사회관 1층 '아카이브라운지'는 회원들의 휴게 공간과 회의, 간이 작업 공간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해 회원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협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간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새롭게 단장할 계획으로, 지난 7월 디자인공모를 통해 황정은 건축사의 '나의 아틀리에'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어바웃아트가 입주해 북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입찰의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바웃 아트는 독일 아트북출판사 TASCHEN의 도서와 예술작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업체다. 조만간 건축사회관 1층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의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돼 건축을 포함한 영화, 음악 등 방대한 도서를 갖춰 회원과 회관을 찾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업무로 회관을 찾을 경우 대기 시간 동안 비치된 책을 보거나 한쪽에 마련된 공간을 빌려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 '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 첫 회의... '공모 시장 정상화, 미래 세대 위한 결단'에 의기투합, 제도개선 나서

설계공모 '로비 근절' 등 공정 확보 차원

"로비가 공모 심사 결과 좌우하는

현 시장 상황 반드시 개선돼야" 한목소리



지난 11월 7일 건축사회관에서 제1회 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설계공모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공모 외부위원을 늘리자 로비가 더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민간건축 체감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눈에 띄게 혼탁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11월 7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정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열렸다. 건축 설계공모 시장에 만연한 부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

다.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가 설계공모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해 협회가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조달청·LH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일 조달청과 '설계공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위원회에는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위시한 회원들이 참여했다.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박도권 대표(위원장)를 비롯해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기한 대표,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태성 대표, (주)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김동근 대표, (주)동원 건축사사무소 우형호 대표, 세담 건축사사무소 송원희 대표, 그리고 월간 건축사지가 주관한 '보다 나은 설계공모를 위한 좌담회'에 패널로 참여한 (주)아이디알 건축사사무소 이승환 대표, (주)온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박현진 대표가 참석했다. 위원 모두 후배 건축사와 미래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공모 정상화를 위한 대안 도출 ▲사례조사 ▲세미나·캠페인 ▲제출안에 대한 피드백(리뷰)을 통해 설계자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협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공모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면, 협회가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축정보센터...신규제품 등록 'UP', 자재정보 지속 업데이트

회원 편익 증진, 자재정보부터 SW 공동구매까지 '원 클릭' 해결

최근 건축정보센터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협회 회원 권익보호의 창구로 거듭나고 있다.

10월 말 기준 현재 건축자재정보는 일반건축자재가 2,016건,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가 488건이 등록돼 있다.

건축사 회원들은 건축자재정보를 이용해 건축설계 시 필요로 하는 각종 건축자재의 정보(자재정보, 시험성적서, 업체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상세도 등) 검색과 대한건축사협회 추천자재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등록제품은 Archicad, ZYXCAD, 4MCAD, CADiAN, ZWCAD, BricsCAD, ARCHIDESIGN, MS Office를 포함한 8종이며, 하드웨어는 삼성 및 HP PC 및 모니터, 신도리코 복합기 등이다.

박관희 기자

# 힘펠

## 대한민국 집의 가치를 높인다

Hueven S+  
스탠드형 환기시스템

Huezentte Palette  
욕실 복합 환기장치

ZEROC P  
프리미엄 욕실 환기장치

Hueven EBN  
천장매립형 환기시스템

ZEROC H  
2in1 욕실 환기장치

Hueven W  
벽부형 환기시스템

환기, 선택이 아닌 필수

욕실 복합 환기장치

Huezentte 2

Huezentte 3

**HIMPEL** 본사 경기도 화성시 안성남로 5 TEL. 1899-0991 FAX. 031-424-0993 쇼핑몰 www.himpellmall.com

▶1면에서 계속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LH 사태는 저가수주 경쟁·설계 및 공사기간 절대적 부족·감리독립성 결여가 복합된 결과, 법안 발의로 건축물 안전이 건축과 구조 문제로 국한·왜곡돼”  
단체 간 논의, 주무부처와 사전협의조차 없는 졸속 입법 철회 촉구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건축사회관 대강당에 진행된 반대 성명서 발표회장 전경

단체들은 LH 사고를 비롯한 일련의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저가 수주 경쟁, 설계·공사기간의 절대적 부족, 감리의 독립성 결여, 안전불감증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에 기인해 건축과 구조 업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 관련 정부 조사와 결과에 대해 건축계 대표 단체로서 깊은 자성의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와중에 금번 법안이 발의됐다”며 “문제는 법안 발의로 건축물 안전이 마치 건축과 구조의 문제로 국한·왜곡되는 현실이며, 건축계 단체들은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성명서 발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석정훈 회장은 “해당 법안의 근본적 오류는 구조와 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고, 건축 구조 협력 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국민의 불편·부담도 가중되며,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안 작동 역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구조설계, 즉 구조디자인은 건축사 고유영역 건축설계의 본질”



한국건축가협회 임진우 부회장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한 몸으로 협력해야 ‘좋은 건축’ 가능”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  
(법안 발의로) “건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혼란 가중”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수석부회장  
“개정법안은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부실 이야기”



한국건축설계학회 신창훈 부회장  
“구조 인력 부족 문제, 구조 인력 양성화에 힘을 쏟을 때”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  
“건축·구조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히 협력하고 상의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해야”



###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전문가 단체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 발주하여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12465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을 강력히 반대한다.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경쟁, 설계·공사기간의 절대적 부족, 감리독립성 결여, 안전불감증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건축과 구조 업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의된 개정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 첫째, 구조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이 해결 될 수 없다.

건축과 구조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확인이 필요한 협력업무로서, 분리될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 및 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뿐 결코 건축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는다.

#### 둘째, 건축분야 협력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

설계·감리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업무구분의 모호성으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부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된다.

#### 셋째,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분리 발주 시 법안 작동이 불가능하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681개)는 건축사사무소(16,134개)의 약 23분의 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인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 확대는 구조업무 협력지연, 불법자격대여, 무자격 용역회사 확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전문가 단체는 2만7천명의 건축사와 50만 명의 건축인을 대표하여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9일

나아가 석정훈 회장은 “구조설계 즉 구조 디자인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며, 이것이 건축설계의 본질이기도 하다”며 “구조설계는 건축사,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라는 본질은 건축이 존재하는 한 불변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국건축가협회 임진우 대외협력부회장은 “건축의 3요소(구조, 기능, 미)가 합리적으로 구현될 때 좋은 건축물이 완성된다. 건축에 있어 구조와의 상호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한 몸이 되어야 좋은 건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조 분리발주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없고,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계약관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이로 인해 건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돼 성명서 발표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된 법안을 마련하든지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는 등의 조치가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수석부회장은 “건축물과 구조체가 분리될 수 없듯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관계 법률에 의해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협의와 결정, 수정과 확인을 한다”며 “개정법안은 설계 업무 범위 부분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 부실, 설계 및 공사기간과 발주

처의 행정업무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의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축설계학회 신창훈 부회장은 구조 인력 부족의 문제에 대해 “건축은 형태와 공간으로 이뤄지는데, 설계와 구조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의 공간과 형태, 또한 건축적 소양이 없는 건축문화의 퇴보가 자명하다”며 “건축구조의 분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 인력 부족의 문제, 구조 인력 양성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일침 했다.

현재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681개)는 건축사사무소(1만6134)개의 약 23분의 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형편으로, 인력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기술사 업무 확대는 구조업무 협력지연, 불법자격대여, 무자격 용역회사 확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아울러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는 “구조분야는 건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단독으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기술분야라기 보다 건축을 이루는 중요한 성격의 요소로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한다”며 “그럼으로 구조분야를 독립시키기보다 건축분야와 구조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히 서로 협력하고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도 이런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 후 건축계 단체들은 상호 협력하여 국민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관희 기자

사설

### 회원의 업무에 협회가 이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여러 개의 단체 SNS 대화방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은 설계 과정에서 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문,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와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 등을 서로 문의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프로젝트마다 각각의 특수성을 가지기도 하고, 관련 법규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허가권자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처럼 여러 명이 함께하는 대화방에 문의하여 유사한 문제를 경험해 본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허가권자의 의견과 건축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유관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어떤 해석이 맞는지 판단하게 되기도 하는데, 결국 질의회신의 마지막 문구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어서 질의회신에 소요된 노력과 시간이 결국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건축주와 발주처는 업무 처리 기간에 따른 금융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의회신을 거치는 시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법규 해석과 달리 특정 지자체에서만 절차를 다르게 진행하고 법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한다. 지역적 특성에 의해 조례로 명확하게 정한 내용이 아닌데도 아무 근거 없이 법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건축사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고 권위를 가지는 판단을 해주는 주체가 협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기존에 협회 누리집을 통해 회원 지원을 위한 게시판을 운영하며 노력해 주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많은 회원들이 더욱 신속하고 권위 있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전문가가 작성한 허가도서를 비전문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머지않아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그전이라도 해석 차이 의견 차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공문을 제공하여 건축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매우 기본적인 건축법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에 의해 잘못 해석되면 업무 진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갈급하다. 심지어 이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지원을 원하는 건축사들이 많으며, 건축주와 발주처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공된 서비스를 위해 기꺼이 발생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 생각한다.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 규제하고 법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 삼아 대한민국 건축사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설계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법규가 해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석이 어려운 경우 저마다의 SNS 대화방이 아닌 협회 전체의 집단지성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끔은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투표를 받는 변호사처럼 건축사 투표를 받아 판단에 참조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하는 회원도 있었다. 명확한 해석에 대해 허가권자의 의견이 다르면 즉각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정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 시대의 강력한 회원 지원을 기대해본다.

시론

### 소규모 현장의 품질개선을 위한 제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모든 행정업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이 건축사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상호 계약관계와 업무구분이 명확한 편이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그야말로 건축사가 모든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사고들이 결국엔 문서로서 귀책 여부가 판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서는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업무수행에 대한 생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건축사 자격등록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들은 지속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근 LH 부실공사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공사감리 전문교육도 추가되었다.

그런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하시는 건설업계 종사자들 상당수가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들이고 몇 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일선 현장에서 철근을 심고 있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교육과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설업계에 묻고 싶다. 결국 소규모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려있다.

건축행위에서 건축행정의 주체는 건축주이며 건축사는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권태원 건축사  
토호건축사사무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도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업무대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설계업무와 업무대행은 명백히 다른 것임에도 설계자는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에 대한 커다란 압박과 강요를 받고 있다. 특히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안전과 위법성에 대한 책임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축주와의 계약관계로 애매하게 정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업무주체를 법제화하여 공정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사 시공자가 준공절차에서 그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림에서 서류만 챙겨주는 모양새로 빠져있고 그것도 설계자가 모든 서류들을 검토해서 잘못된 서류들을 재요청하며 마무리를 해야 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광고 문구처럼 구분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구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감단계에서의 공사품질도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설계

도면의 무리한 디테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마감공정의 순서와 시공성 그리고 임의 자재 변경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현장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 공정이 골조 중심이다 보니 마감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건너뛰어지고 준공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의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 공정을 골조 중심에서 방수, 창호, 외부마감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감리세부기준에 비상주 공사감리의 경우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마감공사 완료 시 현장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으나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 규정에는 없다.) 법적 강제력이 생기면 시공자도 임의로 자재 변경이 어려워지고 공사감리자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품질도 개선될 수 있다. 건축물의 품질은 마감단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감단계를 조금만 챙겨도 건축물 하자 발생 가능성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건설현장에서 종합조정업무 역할을 건축사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의 주체일 이유는 없다. 법제화를 통해 건축행정절차별 주체자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의 균형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나아가 공사품질관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해 설계자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고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확대에 인한 대가기준 상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대행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참조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중·초급 : 70시간 - 특·고급 : 105시간
품질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직무구분	이수대상	이수시간
설계·시공	특급 건설기술인 /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인터뷰 김중성 (주)서울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명예사장

## “최적의 구조·공법·재료를 활용하고 고민해 좋은 건축 창작하길”

건축물이 과거·현재·미래로 연결되도록 방법론적 고민 필요

디자인과 기술의 합리적인 조화와 추구 ‘김중성 건축상’에 담아

“건축적 지식 활용해 건축 창작하는 게 건축사의 사명”

1세대 한국 아키텍트인 김중성 선생은 논리적이고 모던한 건축 미학을 지향해왔다. 그는 서울 힐튼호텔 설계를 비롯해 서울역사박물관, 종로 SK 빌딩, 경주 우양 미술관 등을 설계하며 한국 건축의 모더니즘의 진화를 이끌었다. 구조·비례·재료를 통한 건축미학을 추구해 온 김중성 선생이 최근 ‘로마네스크 건축’에 관한 다섯 번째 포토에세이를 출간했다. 2020년 첫 번째 시리즈를 발간한 뒤로 꾸준히 이어온 작업을 완성했다. 그가 원초적인 건축 미학을 대표하는 로마네스크 건축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뭘까. 대한건축사신문은 김중성 선생을 만나 건축 철학과 지향에 대해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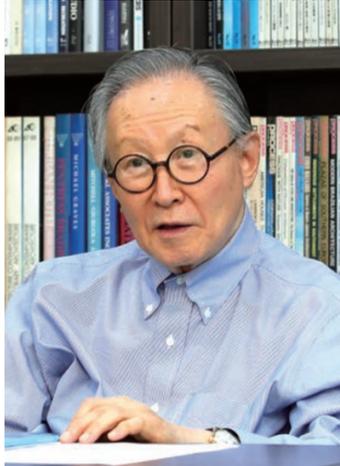
“제가 설계하는 건물은 지금도 모더니즘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건축입니다. 건축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은 세기를 초월해 공통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10세기부터 시작해 11세기에 개화한 로마네스크 건축을 답사하며 건축 아름다움의 본질을 체험하고 정신적 정화를 경험해왔습니다. 서울에

서 종묘를 찾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을 찾아 한나절 머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유럽의 로마네스크 건축을 탐구했다. 또한 로마네스크 건축을 다루는 웹사이트인 ‘Via Lucis’의 기고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건축의 원형적인 구법인 볼트(vault)로 구성되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건축 장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양성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담고자 한 것은 로마네스크 건축의 공간 요소들이 어떻게 융합하는가를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에 대한 탐닉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작금의 상황에 생각의 여지를 던진다. 이는 한 건축사의 작품이 미래의 시간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와 맞물린다. 현대 건축유산인 남산 힐튼 호텔의 보존과 개발을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간 것도 이



김중성 선생이 본인의 건축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건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오두막, 움막 등은 주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주거의 기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학교, 병원, 집회 시설, 전시장 같은 공간은 기능에 맞는 새로운 구조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 스캔 구조, 경량화된 외피 마감재 같은 21세기의 기술, 공법, 건축자재를 적절하게 구사해야 합니다. 남산 힐튼 호텔의 보존과 개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알루미늄 커튼월로 구성된 타워 매스를

보존해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주거용도의 증가가 어렵다면 오피스텔로 개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브론즈 구조재, 트래버틴 바닥, 녹색 대리석, 오크 패넬링으로 마감된 18미터 높이의 구성된 로비 아트리움 공간의 보존입니다. 이 공간을 현재 폐쇄된 남·북쪽 천장을 개방해 신축 건물과 연결하고, 서쪽 방향과 서울스퀘어를 적극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그는 두 가지 요소를 보존하면서 현재 호텔 용도의 건물에 새로운 내부 기능을 넣어 도시적 면모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시대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요소와 이를 위한 기술 등 복합적인 고민이 더해진 제안이다.

디자인과 기술의 합리적인 조화와 추구는 그의 이름을 딴 ‘김중성 건축상’으로도 이어진다. 2010년부터 시행된 ‘김중성 건축상’은 디자인에 적용한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창의적이고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난 건축물을 선정하고 이를 만든 아키텍트에게 상을 수여한다.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의 이성관 건축사, (주)조호 건축사사무소 이정훈 건축사, 원오원아키텍트 최욱 대표, (주)황두진 건축사사무소의 황두진 건축사가 수상한 바 있다.

“테크놀로지(Technology)는 구조, 마감재, 냉난방, 조명, 에너지 소모를 망라해 건물을 지어내는데 구사되는 기술을 모두 포함합니다. 때문에 19세기에도 활용되던 철근 콘크리트로 골조가 구성되는 건축 작품이라도, 다른 구성요소, 예를 들자면 외피가 테크놀로지를 창의적으로 구사한 건축이면 김중성 건축상의 수상작 후보로 진지하게 검토됩니다.”

건축 환경의 변화가 큰 만큼 현시대를 1세대 건축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중성 선생은 후배 건축사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건축적 현주소는 제가 처음 건축계에 발을 디딘 1960년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건축주의 예산을 감안해 설계 과제를 진행하면서도 최적의 구조, 공법, 재료를 활용하고 고민해 좋은 건축을 창작하라는 것입니다. 미술사가 니콜라우스 펄스너(Sir Nikolaus Pevsner)의 말을 인용해 한 마디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는 자전적 참고를 ‘건물’로, 링컨 대성당을 ‘건축’으로 정의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축적 지식을 활용해 건축을 창작하는 게 건축사의 사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조아라 기자

### 해외건축 NOW - AIA Award for Excellence in Public Architecture

## 공공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에 건축 디자인적 고민의 중요성

건축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한 번 건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상시 사람들이 이용한다. 때문에 건축사는 설계에 앞서 건축물이 미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역마다의 특색과 환경이 다른 만큼 사회 전체를 조망해 보는 거시적 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신문은 매년 발표되는 주요 해외 건축상을 훑아보려고 한다. 대체로 건축상은 시대적, 사회적 경향성을 담은 작품을 선정한다. 건축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건축계가 지향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공공장소의 디자인적 우수성에 주안점을 둔 AIA 공공 건축 우수상을 소개한다.

공공성은 건축과 떼어놓을 수 없는 화두다. 건축이 현재와 미래 거주자, 그리고 지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공건축은 취약한 커뮤니티를 포용하고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평등성, 포용성을 담보해야 한다.

AIA 공공 건축 우수상은 우수한 공공장소 디자인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높인 아키텍트에게 수여된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도 수상자인 로버트 아이젠스타트(Robert Eisenstat)의 수상은 눈여겨볼 만하

다. 아이젠스타트는 20여 년 이상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의 설계 리더로 일하며 교통 건축 분야에서 인상적이고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아왔다. 그래서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운송 및 인프라 영역에서 디자인 우수성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전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Port Authority Bus Terminal) 마스터플

랜이다. 오래되고 규모가 큰 이 터미널의 재개발을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인 뉴욕 라과디아(LaGuardia) 공항 재개발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그는 맨해튼 시내의 교통 계획을 주도하고 세계 무역 센터에 PATH(Port Authority Trans-Hudson) 통근 열차 서비스 도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이젠스타트는 자신의 경력 중 PATH 통근 열차 서비스 도입을 가장 보람찬 협업으로 꼽는다. Lower Manhattan까지 항만청 Trans-Hudson 통근 열차를 복원하는 것과 그에 따른 영구 건설을 위한 교통 계획이었다. 임시 PATH 터미널은 빛, 공간, 장소 만들기의 조합을 통해 보편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2년여에 걸쳐 설계와 시공이 진행됐다.

아이젠스타트는 “교통 및 기반 시설 증진은 뉴욕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무역 센터 임시 PATH 역 입구 캐노피 및 광장

사진=AIA

사용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 건축에서의 아키텍

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건축** 질의회신 **Talk** 

**외벽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여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2조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3.9.22

<b>질의 요지</b>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된 시설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b>회신</b>	먼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때의 대수선 대상인 건축물을 '그 외벽에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의 문언상 건축물의 외벽에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중전에는 그 건축물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경우라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외벽에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개념**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주택법」 제2조	-	22.10.28

<b>질의 요지</b>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택"이란 세대(世帯)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으로서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b>회신</b>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帯)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3호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4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것으로 판단됨.

**세움터 동별개요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22.8.3

<b>질의 요지</b>	세움터의 동별개요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1층이 접한 지면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산정된 지하층의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b>회신</b>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것임.

**휴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휴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국회 입법 동향**

**제2의 검단사고 방지 'LH 등 공공발주자  
책무와 의무 부과' 법률안 발의돼**

**“실효성 있고, 건축 전반 관통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실시공 문제 해결,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의무·책임 강화 노력에 대한 주문도 구체화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발주처인 LH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이 건설 현장의 LH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발주처인 LH에 대한 처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처로서의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체계 부족 사실  
드러나**

**발주자 책임 강화와 함께  
건축 현장 종합적을 관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건설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영 의원 역시 광주 붕괴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해지권과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민형배 의원은 김정재 의원과 마찬가지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태영 의원은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그리고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 사항 중 건축물 기초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홍정민 의원의 건축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가 건축 안전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이지만 실상 법안 면면을 보면 기존 안과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게 대다수”라며 “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건축 현장을 관통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고, 자칫 제도화를 통해 불필요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후속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분쟁! 이럴 땐 이렇게**

**설계 계약 체결한 재건축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대처방안은?**

2년 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A 건축사사무소가 조합으로부터 설계 변경 요구를 받고, 설계를 변경하며 정비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조합 측은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할 때 용적률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했는지, 돌연 A 건축사사무소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경우 A 건축사사무소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을까?

법조계에서 건축설계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일

반적이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무상을 떠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고 판단하고 있다.

유재민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도 “위임계약에서 상대방이 중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액 약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의 해지 효력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A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용역대금 중 받지 못한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조합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현재와 같이 신뢰관계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설계 업무의 계속 수행은 상호 불편하고, 위임계약의 법리상 계약 해지 효력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효력 자체를 다투지는 못하더라도 조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A 건축사사무소는 계약에 따른 설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처방안이라는 것이다.

박관희 기자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 발표

# 전통 한옥미 갖추되, 다른 형태로 발전시킨 한옥 주목받아

단독주택·지방 소도시...규모보다 한옥의 완성도 높이 평가해

금년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준공 부문 대상은 '정다운 집(설계 어번디테일건축사 사무소의 최지희, 텐틀러 다니엘)'이 받았다. 이 작품은 여백이 느껴지는 한옥 고유의 공간이 잘 구현됐으며 완성도가 높아 현대 주거문화에서 한옥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이 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천일 한의원(설계 류와 건축사사무소 류종미, 강성원, 김소희)과 화림원(설계 건축사사무소 하오 김세원, 이흥원, 김계원)'이 수상했다.

대한건축사신문은 준공 부문에서 수상자인 최지희, 류종미, 김세원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 소감과 이번 수상이 건축사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최지희 건축사

최지희 건축사 단독주택의 규모로 인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와 함께 장관상을 받게 돼 무척이나 기쁩니다. 올해는 어번디테일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한 지 1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 시간동안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텐틀러 다니엘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시 우수한옥 대상과 한옥공모전 수상 등을 통해 우리의 방향이 맞게 나아가고 있다는 인정을 받은 듯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류종미 건축사

류종미 건축사 큰 규모도 아니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도 아닌 지방 소도시의 유일한 한옥 건축물이 한옥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돼 놀랐습니다. 더불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크고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공공건축이 아님에도 작은 마을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의 가치를 알아봐 준 점이 개인적으로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김세원 건축사

김세원 건축사 2016년에 이어 금년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두 개의 건축물 모두 설계, 시공,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에 열정을 다해 작업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설계를 맡겨주신 건축주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사를 진행하신 도원수께도 감사드립니다.

**Q. 작품 설계과정에서 염두에 두셨던 점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지희 건축사 '정다운 집'은 은퇴한 부부가 여생을 보내고 이후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집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전통적인 한옥미를 갖춘 한옥을 설계했습니다. 긴 대지의 형태를 이용해 사랑채와 안채로 채 분리를 했습니다. 전통 대청의 연등천장을 살리고자 2층은 대청을 피해, 대지의 안쪽 끝에 최소한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2층의 배치는 도로 측 전면에서는 단층 한옥으로 인식이 돼 좀 더 개방감 있는 편한 느낌을 줍니다. 안마당에서는 낮은 남측을 통해 하루 종일 별이 잘 들면서도 위화감 없는 공간감을 줍니다.

류종미 건축사 원래 설계는 한옥 한채에서 시작했지만 탕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의원이기에 탕전실 기능을 강화해 탕전실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설계로 최종 진행됐습

니다. 한옥은 순수하게 진료를 위한 진료동으로, 연구동은 안전한 탕전을 고려해 현대적 콘크리트 건물로 설계했습니다. 별도로 분리되고 형태와 규모도 각각의 모습을 지니게 됐지만, 한의원으로 동작하는 하나의 군집이기에 맞는 부분의 동선 연결과 형태적 가감이 중요했습니다. 상호 비어짐으로 연결된 2층은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마당을 품은 큰 'ㄷ자형'의 전통적 한옥 배치를 유지하고 있어, 또 다른 형태의 발전된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원 건축사 '화림원'은 소박하고 평범한 한옥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마을 입구에 두 개의 도로와 접한 삼각형 대지에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 같은 한옥 말입니다. 약 8개월에 걸쳐 화림원의 설계를 마치고, 시공을 시작했을 때 건축주가 집과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한학자를 통해 상량문(上樑文, 새로 짓거나 고친 집의 내력 등을 적어둔 문서), 택호(宅號, 성명 대신 집주인의 이름, 고향명 등을 붙여 집을 가리키는 호칭), 당호(堂號, 집에서 따온 집주인의 호)를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시제로 한시를 지어 기둥에 주련(柱聯, 기둥이나 벽에 장식으로 써 붙이는 글귀)을 더해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화림원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지희 건축사 저희의 근간인 한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 건축물 속에서 개념적으로든 형태적으로든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목구조와 친환경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해서 더 쌓아, 거주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류종미 건축사 건축주와의 호흡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



정다운 집(최지희 건축사)

사진=Hooxme 이상훈



천일한의원(류종미 건축사)

사진=박영채 사진작가



화림원(김세원 건축사)

사진=건축사사무소 하오

다. 천일한의원도 우연한 인연과 꾸준한 소통으로 건축주가 원하던 건축물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규모의 제약과 한계를 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설계하는 건축사이고 싶습니다.

김세원 건축사 전통적인 목구조 형

식의 한옥을 설계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경제적이고 현대적 재료를 사용해서도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전통 공간의 구성을 사용자가 느끼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려 노력할 것입니다.

조아라 기자

## 친환경 건축자재 불시 점검

### 주방가구·도료·실링재·벽지·룸카펫 5개 품목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생활과도 밀접한 주방가구, 도료, 실링재, 벽지, 룸카펫 등 5개 품목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 업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재별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KS 품질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

펴볼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불시검문을 통해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 전량 폐기·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조아라 기자

##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환경부 환경마크 획득 |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우수건축자재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동원/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장성길 건축사(경상북도건축사회)

## 장성길 건축사 “신입 회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민간 대가 책정”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긴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장성길 건축사(장성길 건축사사무소)



장성길 건축사가 진행한 근린생활시설 프로젝트

자료=장성길 건축사

### 한옥과 현대건축 잇는 건축 디자인 방향 추구

“협회는 회원 결속·소통 창구, 건축사 동반 발전 이끌어야”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대학시절의 열정을 갖고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건축사사무소 이름도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자는 뜻에서 제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힘에 부치는 일들이 많지만, 처음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는 이상 두려울 것은 또 없더라고요.”

장성길 건축사는 건축설계 등에서 베테랑 건축사임에도 여전히 ‘초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겐 그것이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고, 건축주 등 고객의 만족과 이상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장성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를 통해 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 입회 후 달라진 일상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에 따른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고향인 경주에서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개소 당시 지인들이 20년을 넘게 대구에서 생활을 한 탓

에 텃밭을 두고 경주에서 개업을 한다고 걱정도 해줬고, 한편으로 건축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망설임 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결단력에 부러움과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개업을 선택했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현재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궁금하고, 입회 후 건축사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번은 중학생이 된 아들이 저에게 “아빠는 꿈이 있었어?”라고 물어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는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중학교 시절엔 00가 되려 했었지”라며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현재 나의 꿈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떠오르게 되더군요. ‘내가 꿈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인가’ 자문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아들 덕분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가지게 된

게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업으로 하고 있는 건축설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항상 고민하고 의문과 질문을 던져야 하며, 혼자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건축사로서 저의 꿈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워진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건축주)와의 많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고, 시대적, 환경적, 경제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연구해야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2022년 하반기 개소 이후, 협회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했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협회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네요. 지금처럼 협회는 회원을 위한 협회, 회원의 교류를 통해 건축사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협회로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직원일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사항들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되고, 벽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경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건축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 그 외에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죠. 건축주와의 업무 상담, 현장 감리, 경비 처리 등 세무·회계, 각종 행사와 교육, 사무실 운영 등 많은 업무들을 혼자 해결해야 하잖아요. 이처럼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업무 대가 산정입니다. 공공건축은 업무 대가 기준이 있지만 민간 업무는 대가기준이 없어 프로젝트를 상담하고 나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 업무 대가에 대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건축사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건축사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24년을 타지에서 생활하다 고향인 경주에 와서 보니 가장 먼저 한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잘 알지 못했던 그래서 낯설게만 생각했는데 본격적으로 한옥을 공부하다 보니 점차 전통한옥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한옥, 한옥과 인간이 어떤 형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었는지 학습하고 있고, 이를 통해 현대건축과의 접목, 나름의 건축 디자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이란 항상 어렵고, 두렵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설렘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축사들에게 선배 건축사들이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업무를 하면서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리사랑’은 다시 후배 건축사들에게 이어지고, 결국 업계는 여유와 책임감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처음’이 있듯 ‘처음’이 어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박관희 기자

## 아톰월드 기계식주차

국토교통부 주차대수 인정

실 사용 목적의 효율적인 주차(특허 제 0917225호, 1884830호)



지자체 & 건축

# 지자체 녹색건축 확산...녹색건축물인증 도입하고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잡아

경북·경기·전북 등 녹색건축 앞장

민간 참여 유도 위해 각종 건축기준 완화,

취·등록세 감면, 공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추가돼야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의 39%가 건축물과 연관돼 있다. 건축물 시공, 건설자재 생산, 건축물 운영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시공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포함하면 시공단계에서의 배출량은 보다 증가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생애주기(계획-시공-운영-해체) 중 운영단계(40년 기준, 28%) 대비 단기간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공단계(2~3년, 11%)의 탄소중립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사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여야 한다.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이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초과 온실가스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친환경 생태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건축물 시공

시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 고려하고, 6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도 패시브와 액티브 기법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해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로에너지 정책과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통해 에너지 효율 제고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운수시설·병원, 학교,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를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한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유지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고, 건물 사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최근 이어지는 건축물들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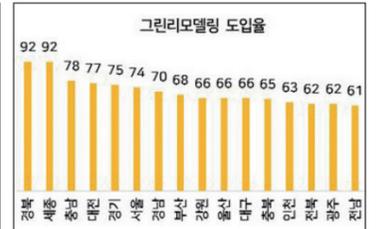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녹색건축설계를 도입한 녹색건축물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녹색건축물을 지으려면 고성능 단열재·창호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액티브 기술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태양광·태양열·지열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면 녹색건축물이 된다.

때문에 녹색건축물은 전기와 가스 등의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건물 가치를 상승시킨다. 또 유지비 절감액이 누적될수록 초기 투자비를 만회할 수 있다.

### ◆ 용적률과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와 녹색건축 확산 위한 비용 절감책 제시돼야

건축과정에서는 인허가 시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완화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조례가 정하는 기준 용적률과 건축물 최고높이의 2~12%까지 가능하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인 경우 15% 적용도 가능하다. 준공 시에는 취득세 5~15%, 재산세 3~15% 경감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인증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자료=국토교통부)

### ▶ 건물부문 탄소중립 추진 내용

<b>제로에너지 건축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li> <li>2025년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물 의무화</li> </ul>
<b>그린리모델링</b>	공공건물의 경우 재정으로 공사비 지원, 민간건물은 공사비 이자부분 지원

실제 녹색건축 확산 등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는 경상북도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 현황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88점,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92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북은 공공 그린리모델링 대상 비중(15%)이 높고, 민간 그린리모델링 실적도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건물에너지성능부문에서도 건물에너지성능(BEPI) 달성도 78점(5위), BEPI 노력도 86점(1위), 건물신재생 비중 73점(4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밖에 경기도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적극 홍보'가 가장 우수한 평

가를 받았고, 전라북도는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전북은 인적역량 68점(7위), 예산운용 81점(3위), 정책기반 82점(1위), 우수 사례에서 79점(4위)을 기록했다.

건축연구원 김용준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민간건물의 비중이 97%임을 감안할 때 녹색건축물의 확산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의 장점에 대한 민간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마중물이 요구될 것"이라며 "건축기준의 완화, 취·등록세 감면, 공사비 지원과 같은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녹색건축물의 냉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등 장점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REPORT - 대전·세종연구원

## 대전·세종 도시 특성 살린 유니버설디자인 구현 방안 살펴보니

공공건축물 신·증축 다수 예정된 세종시 규모·특성 고려해야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적용되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뿐 아니라 국내 지자체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도화하고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의 경우 관련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환경 구축을 기반으로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세종시 의회는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은 유니버설 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본 것이다. 이러한 세종시의 행보에 맞춰 대전세종연구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전략과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전략을 살펴봤다.

### ◆ 유니버설 디자인, 세종시의 차별전략은?

세종시는 '친화도시' 전략을 내세워 2016년부터 여성, 아동, 고령친화 조성전략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 조례 제정 ▲

실천방안 제시를 위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유니버설 디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총 3단계다.

세종시는 21세기적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 친화도시를 추진한다. 2023년까지 전략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친화도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세종시가 나아가려고 하는 지향점과 연계로 전략적 시너지 효과의 도모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타 시도가 추진한 관련 계획과 전략을 참고하되, 세종시만의 전략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세종시라는 도시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사 사례의 도입은 한계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특성 상 관내에 다수의 공공청사가 입지해 있다. 향후 세종국회의사당, 국립박물관단지, 종합운동장, 세종시청 증축 등이 예정된 만큼 공공건축물의 신·증축 시 유니버설 디자

인 개념이 적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유니버설 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처음 도입된 1980년대와 현재의 시차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모습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크다. 시민들의 필요사항 역시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을 띤다. 시대적 흐름 변화를 인식하고 전략에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읍면-행복도시를 잇는 공통 추진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은 읍면 마을 단위의 개발에 유니버설 디자인 전략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고품화 시대에 놓여준 지역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해, 도시 중심에서 탈피, 고품화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현상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첨단 디자인 기술과 융합된 미래적 유니버설 디자인도 전략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니즈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휠체어용 보행 시설정비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모형 문화재 제작, 무장애 범용디자인 안내판 설치 등 관람시설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장애인의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전에 비해 스마트해졌다. 이를 반영해 디지털 접근성(Digitally accessible city)이 특정 연령층에 접근되지 않고, 노령자·장애인에게 고른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도입해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 차량 개선, 교통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촉각을 통한 안내, 음성 안내 등 기술 결합형 도시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에 주력한다면 차별화된 스마트도시 세종시 모델이 될 것이라 말한다.

조아라 기자

수상 그 후 ㉔

#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노원책상’

청사 단지 연계하는 로비 공간 정체성 명료하게 구축  
적절한 질서의 스케일 제시해 본 청사 입구·신관 흐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허브로 계획  
노원구민 일상 스며드는 건축으로 변모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노원책상' 전경(설계 조윤희 건축사·구보건축사사무소) 사진 텍스트온텍스터

동네마다 대표 일꾼 격인 구청장이나 군수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다. 그 이전까지 구청장이나 군수는 임명직이었기에 각 구청이나 군청 역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국민에게 전하는 역할만 담당하면 됐다. 따라서 공간의 외형은 딱딱한 느낌을 줬으며 일사불란(一絲不亂) 하게 필요 업무만 처리하려 다 녀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각 지역 구청장이나 군수를 뽑게 되면서 구청은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민의 여러 필요에도 응답해야 하는 공간이 됐다. 이 말은 건축적으로 1991년 이전 지어진 구(區)청사 등의 경우엔 예전 외형에, 새로운 필요도 담아내야 함을 뜻한다. 제41회 서울시 건축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노원책상'(조윤희 건축사, 구보건축사사무소)이 들어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도 마찬가지다.

현재 노원구청 건물은 1990년 지어졌다. 구보건축사사무소 측은 이 건물을 "(1990년) 이후 여러 차례 증축을 하면서 세월의 쉼이 곳곳에 쌓인 건물"이라며 "당시 청사 건축이 대부분 그렇듯 큰 그림 없이 건물의 면적을 늘려온 터라, 전체 청사군의 허브 공간 역할을 해야 할 로비가 애매한 크기와 공간 구조로 중앙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공공공간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채 실행되었기에, 노원구청의 기존 로비 공간도 권위적인 공간 배치와 청사 각 부서의 오리엔테이션 기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노원책상' 프로젝트 전의 노원구 청사는 구청 마당 지하주차장, 동쪽 보건소, 'G'자 평면으로 돌출된 별관 등 복잡하게 얽힌 주변 건물과의 연계가 원활치 않아, 건물이 주는 느낌이 산만하고 여러 기능이 질서 없이 혼재하고 있었다. 설계자에게, 복잡하게 얽힌 건축물과의 관계 속에 적절하게 개입해 질서를 잡아가는 어려운 고민이 주어졌다.

설계자는 여러 기능이 이렇게 혼재하는 환경을 정리하는 동시에 청사 단지를 연계하는 로비 공간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구축하고, 적절한 질서의 스케일을 제시해 본 청사의 입구, 식당, 지하주차장, 신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허브로 계획하려 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이미 완성된 건축물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지닌 공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설계도 설계지만, 시공의 어려움도 상당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2층 테라스를 없애고 1층 로비 층고를 확장했으며 로비 전면 유리창을 설치해 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중앙에 배치된 970cm 길이의 대형 원목 책상은 특히 이곳 분위기를 돋보이게 한다.

조윤희 건축사, 홍지학 교수와의 일문일답



조윤희 건축사(왼쪽)와 홍지학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Q. 이 건축물을 설계하시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원구청 로비 문화휴게공간 조성 공사'라는 복잡한 명칭의 공모전에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작은 볼륨의 로비공간을 키우고, 내부에 북카페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간단하게 서술된 브리프와 달리, 복잡하게 얽힌 청사 건축물 군의 관계 속에서 아키텍트에게 요구되는 것은 적절한 개입을 통해 건물의 질서를 잡아가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Q. (앞 질문에서의) 염두에 뒀던 점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요?**

그 해결책으로 로비 문화휴게공간이 지역 사회의 라운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필요에 의해 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이 느슨하게 시간을 잠시 보낼 수 있는 건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는데, 우리는 이 장소를 '풍경을 발산하는 도시의 거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도시의 일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제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기존 청사 건물군의 주 마감재인 백색타일과 이질적이지 않으면서, 유지 관리의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의 테라코타를 오픈조인트로 외벽 시공하였으며, 내부에도 비슷한 계열의 테라코타로 벽체를 마감하여, 외부와 내부, 도시와 공공건축의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2018년 설계를 시작해 2022년 3월 완성된 '노원책상'은 이렇게 때로는 도서관으로 때로는 소규모 공연장으로 변신

록 했습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존 구조물에 덧대어 새롭게 로비 공간을 규모를 키워 덧붙이는 것은 다양한 기술적 이슈를 수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로비 문화휴게공간이 가구로 만들어진 열린 건축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철골조로 증축하는 로비에 신설되는 기둥의 개수와 사이즈를 최소화하며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지하 식당에 마이크로파일(micropile)을 설치하여 신설 기둥과 슬라브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설 기둥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철골보를 바로 기존 콘크리트 보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건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대지의 컨텍스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용도와 규모,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건물은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태생적으로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한 건축의 공공성이 극대화해서 드러나는 곳을 우리는 건물의 문지방 공간(Threshold)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곳은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거처가는 일상적인 곳이며, 동시에 건축과 도시가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하는지가 건축과 도시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원구청의 로비공간은 문지방의 특색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평소에 믿는 바가

해 노원구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다음은 설계자 조윤희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질의 응답에는 설계

실제로 구현되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구보건축에서 노력하는 만큼 발주처(노원구청)와 시공사(하나건설)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진심에 힘입어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최근 들어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심의 초점이 건축물의 특이한 형태나 값비싼 재료 사용 등에 맞추어지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좋은 공간을 느껴보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공건축이 좋은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사용이 한정되는 민간건축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와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근래 들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시는 살아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공공청사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크고 작은 변화를 수반하였고, 건축도 이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원구청 로비 문화휴게 공간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공공건축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의 변화를 감지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지역사회의 라운지'라는 화두를 저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공공성은 무엇이며, 건축적으로 어떤 개입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지 고민해 보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라운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건축작업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과정을 함께했던 홍지학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도 함께했다. 서정필 기자

##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정비 나서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반지하 주택 해체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

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해체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수 있는 이점

이 있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정비·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사업 관련 SH공사가 올해 상반기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임대주택 매입공고'를 한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

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박관희 기자

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박관희 기자

**인터뷰** 김영우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

# “건축과 영화는 현실적인 연결고리 가지면서 지적이고 세련된 전문분야”

건축문화진흥 공로로 ‘2023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후원해 201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국건축영화제’에 참석한 김영우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맨 좌측)

지난 10월 31일 서울시 소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2023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건축물 부문 외에도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위한 시상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수상자 중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프로그래머·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화제는 물론 건축문화 저변과 건축사 위상 제고에 역할을 해준 이도 있었다.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시상대에 선 김영우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을 현장에서 만나 영화제를 통해 본 건축과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지난 2013년부터 11년간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프로그래머·집행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건축영화제 전도사로 자리하기까지 지난 1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더불어 건축영화제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영화제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 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윤재선 건축사가 영화제를 새롭게 리부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도와줄 프로그래머를 구하다가 저를 만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윤재선 건축사의 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열린 자세에 감동을 받기도 했고, 평소에도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관련 예술 분야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 건축을 테마로 하는 영화제라면 타영화제와는 다르게 옛지 있고 흥미로운 영화제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면 2013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프로그램 구성안을 새롭게 만들던 때입니다. 건축을 중심에 두고 영화와의 접점, 그리고 타예술분야와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었는데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할 때, 예상보다 관객들이 많이 참여하며 매진이 속출해서 윤재선 집행위원장과 저희들 모두 놀라고 행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건축가’라는 호칭보다 ‘건축사’라는 호칭을 분명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점을 나중에 인지하면서, 영화 설명이나 프로그램 설명에 ‘건축가’라고 표기했던 걸 모두 ‘건축사’로 바꾸며 웃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Q. 건축이 전문 영역에 속하다 보니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중화’라는 부분이 영화제에서 시사하는 바도 남다르기도 한데요, 영화제 준비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과, 이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여전히 가장 대중적이면서 예술적인 영상매체입니다. 건축 역시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연결고리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영우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

건축에 대한 전문성 확보한 건축사가 관객들과의 ‘접점’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한국건축이 축적해온 고유한 공간적 특성 건축영화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해석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적이고 세련된 전문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영화가 만나는 경우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영화사에는 건축의 영향과 영감을 받은 고전명작들이 즐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주목을 받은 영화들도 건축적인 시각으로 창조한 공간들

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러한 접점들이 대중의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과 영화의 장점들을 잘 활용해, 관객들이 주목하고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가지 덧붙이자면, 건축영화제라는 점에서 건축인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의 행사라고 생각하며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참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건축인들과 대중들이 영화를 매개로 만나는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영화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Q. 매년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통해 많은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접 엄선한 영화들인 만큼 애정이 깊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독자들에게 입문용으로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사 독자들이 스크린에 자주 나타나는 건축의 특징과 스토리는 무엇인지요.**

2013년을 전후로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했지만, 이후에는 집행위원으로 참여하며 컨설팅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담당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고 사무국이 결합하면서 이전에 비해 전문성과 경험까지 겸비한 최고의 팀이 되어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천해 보자면, 아무래도 뛰어난 건축사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들이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정재은 감독이 꾸준히 작업해온 ‘말하는 건축가’나 ‘고양이들의 아파트’도 재미있고, 최근 정다운, 김종신 감독의 작

업들도 독보적인 영토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영화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영화는 건축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건축은 오랜 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 담긴 공간의 아름다움은 한 사회의 건축문화와 역사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영화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구축될 수 있는 건, 한국건축이 축적해온 고유한 공간적 특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점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영화를 본다면 흥미가 배가되리라 생각합니다.

**Q.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건축영화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건축사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영화와 건축이 만나는 지점에 주목하면서 건축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자는 것이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비전이었습니다. 또한 건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쉽게 참여해 건축의 넓고 깊은 세계를 즐길 수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건축의 위치를 함께 탐구해 보자’라는 비전을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15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테마로 하는 영화제는 건축사 여러분과 건축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관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 심사총량제 도입 등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공모제도 공정성·효율성 확대, 양질의 설계공모 경쟁 유도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모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설계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선안은 무분별한 참가 등록 개선을 위해 공모안 미제출에 따른 제재 기준을 정했다. 또 건축사 심사위원의 비중을 확대(2인→3인)했고,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요

건 변경, 국토교통부 운영기준을 표준으로 한 심사위원 총량제(심사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미만) 등을 도입했다. 이 밖에 주요 개선 내용은 ▲심사위원회 녹화 파일 보관기준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설계공모 고도화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기록보관(아카이빙) 대표 사진 컷 추가 등이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누리집

(plane.goe.go.kr)을 통해 오는 1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요건 마련,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11월 1일 시행

앞으로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 공사현장의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사보 배치 현황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 건축법 시행규칙(부령 제1268호) 개정안 주요내용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요건 마련 (제13조 제8항 신설)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설건축물의 입면도·단면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 확인 의무 강화 (제19조 제5항 신설)	건축주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일지에 서명·날인한 감리원과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 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 반대 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10월 17일 서울시건축사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소재 효창운동장에서 건축 구조 분리발주를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2124668, 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에 강력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건축사회 김재록 회장은 “분리발주는 업무의 비효율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금번 발의된 법안은 건축 관계자 간 상호협력 시스템을 붕괴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23 서울시건축사 체육대회' 개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서울시건축사 대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10월 17일 용산 효창운동장에서 '2023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체육대회'를 열었다.

'건축사 한마당, 마음 모아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하나'팀과 '마음'팀으로 나눠 축구, 족구,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자석바지 릴레이, 계주 등이 펼쳐졌다. 또한 추억의 굴렁쇠 놀이, 행운의 고무신 등 재미 있는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회원들의 친목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의날 시상식서 김준식 전 회장 대통령상 수상**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준식 전 회장(상명 건축사사무소)이 10월 20일 서울시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2023 건축의 날'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준식 전 회장 외에도 오종열(주)디자인그룹금성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천의철(주)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김현주(주)엠에이에스 건축사사무소·이아영(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김태문(맥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용대(주)에린이엔디 건축사사무소·김수경(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이 10월 11일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신입회원 50명이 참석해 부산시건축사회 주요 현안 사항과 업무 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건축사회 최진태 회장은 “협회의무가입이 실현된 만큼 건축사들의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부산시건축사회 정책과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2023 대구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10월 21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소 유소년 축구장에서 '2023 대구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사)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대구·경북건축가회 회원과 대구광역시 건축직 공무원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대구시건축사회 석한수 회장은 “오랜만에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힘을 모아준 대구 건축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체육대회가 지역 건축인들의 화합과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공사감리업무 철저를 위한 실천결의대회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11월 4일 동강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건축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감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최근 일련의 건축공사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광주시건축사 회원들이 업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다짐의 지리로, 광주에서 활동 중인 건축사 회원과 가족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대회 후에는 회원 단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가 진행됐다.

광주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광주시건축사회를 비롯한 건축 관계 단체에서 광주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실천대회를 통한 건축사들의 다짐이 광주시의 안전과 사고예방의 원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제7회 울산건축문화제 성료**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에서 열린 제7회 울산건축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건축문화제는 '시간 있어요?'라는 주제로 주제전, 신진작가전, 준공사진전, 울산건축상, 공공디자인공모전, 6대 도시 교류전, 울산대 건축전공 학생 작품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울산시건축사회 김원호 회장은 “울산건축문화제가 시민들에게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하고, 울산의 건축 행정과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제29대 회장에 '양정식 건축사' 당선**



경기도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 제29대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유효표 2,465표 중 1,340표를 얻어 득표율 54.36%를 획득한 양정식 후보가 제29대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양정식 당선인은 “경기도건축사회 29대 회장으로 회원의 성실한 일꾼이 될 것이며, 지난 30년의 업무경험과 집행부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사의 권익보호와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축사회, 2023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는 '2023 경기도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를 10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신입회원 13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건축사회 및 주요 분과위 소개 ▲지역건축사회 및 신입회원 소개 ▲신입회원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은 “경기도건축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신입회원 여러분의 귀한 목소리를 새겨 듣고, 차기 집행부에도 의견들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임원 및 역대회장 정담회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는 10월 27일 강진창자골 종가집에서 임원 및 역대회장,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공무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전남건축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남건축사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2023 경남건축문화제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는 '2023 경남건축문화제'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경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진주시청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계의 재구성'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단절됐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적·공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건축이 가지는 의미를 사유하고, 도민과의 소통으로 실질적인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위카페 다운서 건축전시회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는 경남건축사회 도시정책연구원과 건축사 등 16명이 작업한 17개 준공작품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경남교육청 산하 위카페 다운서에서 전시했다. 위카페 다운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다. 건축 전시회와 함께 경남건축사회는 200만 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제18회 집 그리기 대회 수상작 발표**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주관한 '건축사와 함께하는 2023년 제18회 집 그리기 대회' 수상작이 발표했다. '여기가 좋아'를 주제로 진행된 집 그리기대회는 도내 초등학교 73개교에서 664작품이 접수 됐고, 이 중 238작품이 수상했다. 경상남도교육감상은 창원 월영초등학교 1학년 김경도 학생(제목: 거

미모양집, 저학년부)이, 고학년부에는 하동 쌍계초등학교 6학년 배선율 학생(제목:기묘한 집)이 수상했다.

**경상남도지역건축사회, 제1회 중·고등 건축UCC 공모전 결과 발표**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주관한 제1회 중·고등학생 건축사진공모전이 결과가 발표했다. 대상인 경상남도교육감상은 용남중학교 3학년 황다현, 서민수, 민주성 학생(제목:농촌에서 만나는 학교의 미래)이 수상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건축 UCC 공모전은 직접 촬영한 동영상, 애니메이션, 인터뷰, 광고, 드라마 등 자유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공간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표현하는 '학교가 달라졌어요'가 주제였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3 제주건축문화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10월 25일 제19회 제주건축문화제를 개최했다. 제주건축문화제는 제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건축문화대상, 전시회,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제주건축문화대상은 전 제주도청 김승원 건축지적과장이 수상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제주국제건축포럼 성공 개최에 공헌한 바 있다.

한편,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분 수상작을 비롯해 제주를 포함한 7개 시도(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일본 오키나와 건축상 수상작의 전시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1층에서 진행됐다. 2023 제주건축문화제 행사 당일 영상은 제주건축문화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수원지역건축사회 축구동우회, 일본 시즈오카현 축구동우회와 친선경기**



경기도건축사회 수원지역건축사회 축구동우회는 10월 8일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 시다건축사회 축구동우회와 친선경기를 가졌다. 일본 후지에다시 인근 축구장에서 열린 이번 친선 경기는 한일 양국 건축사간 상호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친선도모와 향후 건축 현안 등에 정보 교환과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진행됐다.

# 건축사공제조합 소식

“건축사에게 미래를  
건축주에게 믿음을”

Tel 02-3473-0900 Fax 02-3473-0921 www.cafco.kr

## 건축사공제조합, ‘신용거래약정제도’ 도입 운영

지난 7월 도입, 편의성 높여 조합 이용률 제고 기대

건축사공제조합이 지난 7월 17일부터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용거래약정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신용거래약정제이란 건축사 업무수행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보증업무를 이용할 때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

라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신용평가등급은 AAA, AA, A, BBB 등 총 10개 등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등급별로 보증 이용한도가 정해진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조합과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해야 이용한도 내에서 보증업무 이용이 가능하고,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다른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다. 조합은 이러한 연대보증제도 불편을 없애고자 조합원의 신용을 평가해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신용평가약정을 선보였다. 조합 측은 서울보증보험보다 전문적이고 저렴하게(입찰보증은 무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이용률 제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최근 건축경기 위축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예측,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조합의 생산성 향상, 법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울수록 힘이 되는 조합이 되도록 조합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 운영현황 (2023. 10. 31. 기준)	
조합원	11,639개사
출자좌수	560,355좌

### ▶ 10월 이사회



건축사공제조합 10월 이사회 모습

- 2024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 이사장에게 위임 의결
-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매 검토 : 업체별 혜택 등 비교
- 비전선포식 개최 계획 : 날짜 및 장소 협의, 집행위원회 구성 협의

### ▶ 건축사공제조합 골프대회



지난 11월 2일 충북 진천 히든밸리 GC에서 하반기 임원 워크숍과 병행해 조합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건축사공제조합 골프대회’를 열었다.

## ■ 공제사고 사례

### ■ 계단실 출입구의 유효너비 미달로 인한 추가 시공비 발생

#### 사고내용

- 방화문 실측 발주시점에 감리자 측에서 계단실 설치 관련 관계법 위반으로 시공자와 설계자에게 알림
- \* 관계법 위반 내용 : 계단실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m 이상 확보되지 않음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 계단실 출입구 수정 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손해사정결과

-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설계 오류임에 따라 건축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사고금액(손해액) 산정 : 타설된 콘크리트 벽체의 컷팅 및 할석 후 방화문을 신설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평가함

사고금액(손해액)	배상금 지급액
13,592,600원	11,892,600원

## 신용등급 평가 결과 ‘A’등급 획득

건축사공제조합이 2023년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우수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금년 신용평가로 조합의 우수한 신용상태 및 안정성을 입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은 이번 신용등급 획득으로 대외 공신력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보증상품의 다양화, 사업영역 다각화, 리스크 관리 선진화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장영호 기자

### “조합 가입을 환영합니다”

#### ▶ 신규 출자 조합원 명단

1	(주)이디엘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유준배	서울	15	그리드이건축사사무소	황성연	인천
2	(주)지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권은진	서울	16	리아건축사사무소	홍주연	충북
3	파스트건축사사무소	김승진	경남	17	서지건축사사무소	서상은	서울
4	태성건축사사무소	서용비	인천	18	밀로재건축사사무소	오태윤	전남
5	대은건축사사무소	백대은	전남	19	건축사사무소도큐먼트	서한나	충남
6	건축사사무소사이studio	이윤희	인천	20	호남건축사사무소	정현조	전남
7	나무건축사사무소	김성임	대전	21	그레이건축사사무소	설현준	서울
8	시티오건축사사무소	차준경	인천	22	건축사사무소하임	송가원	대구
9	금원건축사사무소	최종오	경기	23	신담해건축사사무소	노광수	전남
10	알케이아이건축사사무소	류규영	서울	24	하이건축사사무소	조경애	강원
11	건축사사무소팀의이	이경태	서울	25	건축사사무소하어	김영욱	경기
12	(주)테이블오건축사사무소	한재호	서울	26	다른건축사사무소	김정환	경기
13	성정건축사사무소	성정기	서울	27	일랑건축사사무소	최수훈	서울
14	건축사사무소이건	이현욱	경기				

### “200좌 갖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추가 출자 조합원

1	(주)건축사사무소이상건축	조창호	전북	13	건축사사무소이현	박은선	서울
2	기아건축사사무소	조성복	경남	14	루멘건축사사무소	이용주	서울
3	(주)칭이엔지건축사사무소	정산주	세종	15	온재건축사사무소	김주연	서울
4	바버건축사사무소	나기운	경기	16	건축사사무소단	유미선	제주
5	민건축사사무소	민백기	전북	17	(주)시공인건축사사무소	최세현	경기
6	(주)건축사사무소앙코르	김수자	부산	18	(주)건축사사무소폼아키텍트	김혜민	강원
7	(주)대현종합건축사사무소	박흥선	서울	19	제이훈건축사사무소	성은석	경기
8	(주)디지인현대건축사사무소	김찬광	광주	20	희원건축사사무소	김영일	광주
9	시인건축사사무소	김병엽	경기	21	건축사사무소감남	김진후	서울
10	이숨건축사사무소	남욱재	서울	22	(주)해솔건축사사무소	최병일	서울
11	지오건축사사무소	배상수	경기	23	(주)피앤비디자인그룹	박찬근	부산
12	(주)리온건축사사무소	오신욱	부산	24	지태건축사사무소	박길수	서울

## 조합원 이용 편리성 개선에 ‘온힘’

2023년 건축사공제조합이 조합원 업무 이용 편리성 제고, 복지 향상을 위한 ▲증서 24시간 무심사 자동발급 ▲신용평가를 통한 약정제도 도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0% 할인 등 조합원에게 차별화한 혜택을 지속 제공

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합은 마일리지 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 보증제 도입 검토 등 조합원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영호 기자

### ▶ 건축사공제조합 업무·복지 이렇게 개선됐어요

개선사항 (시행 중)	소액(공제가입금액500만원, 보증금액100만원 이하) 증서 24시간 무심사 자동발급 연대보증 제도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신용평가를 통한 약정제도 도입 조합원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리뉴얼 (착수) 대형 사무소의 가입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우대조합원 골프대회 개최 연금화 사업 토대 마련을 위한 200좌 갖기 운동 전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0% 할인 제휴 (나이스평가정보 : 02-3771-1801) 건강검진 할인 제휴(고려대병원02-2626-1114, 서울성모병원1588-1511, 녹십자아이메드1644-0808) 법률·노무 자문 서비스(하단 광고 참조)
개선 준비 중	조합원에게 이용 혜택 부여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건축사업무 대가 지급보증(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 조합원 복지를 위한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 구입 검토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의, 유일한 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의 자산이자 자부심입니다



손해배상  
공제(보험)  
건축주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

「건축사법」에 따른 의무발급 대상  
가입 후 발급한도 제한 없이 즉시 이용

- 공제사고 발생시 구상 없음
- 소액증서 심사 없이 자동 발급

공제료의 10% 추가 납입으로 배상범위 확대 가능

- 특약으로 대위권 포기, 교차책임, 완공 후 하자담보, 공제료 분납 등이 있으며 **대위권 포기 특약을 체결하시면 건축이외에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적산, 토목 등의 업무까지도 추가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공 후 하자담보 1년 무상 제공

-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공제의 가입기간은 ‘착공일~완공일’이나, 조합은 **완공 후 하자담보 1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  
이행(입찰·계약 하자), 지급(선금) 등  
건축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출자지분 최대 60배까지 보증서 발급 보증서 해제 → 한도복원

- 서울보증 대비 최대 5배 수수료 저렴
- 신청당일 신속 발급



용자  
사업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 용자

출자지분액의 80%내에서 용자가 가능

- 연이율 2% 저리 용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건축사공제조합 법률 및 노무 자문



### 법률자문

- 자문변호사 : 김덕희 변호사(법무법인 민)
- 연 락 처 : 02-6250-0103
- 자 문 시 간 : 매달 첫 번째·세 번째 수요일(오후 14:00~16:00)
- 자 문 범 위 : 조합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이슈 등에 대한 법률상담

### 노무자문

- 자문노무사 : 금원환 노무사(노무법인 누리컨설팅)
- 연 락 처 : 010-4810-6518
- 자 문 시 간 : 매주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오전 9:30~11:30)
- 자 문 범 위 :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제반 노무관리 이슈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자문은 자문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자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김남국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march@donga.com



##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이 본업의 전문성 강화 첩경



투수가 타자로 출전해 실패하더라도 본업인 투수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전문 분야 이외의 일을 맡기는 건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딴 곳에 한눈팔지 말고 전문성을 더 키우고 정교하게 다듬는데 온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경쟁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 판단이다.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집중과 몰입이 필수적일 것 같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최신희(2023년 11,12월 합본호)에 세계적 경영학 학술지 'Organization Science'의 논문이 소개됐는데, 상식과 달리 전문분야 이외의 일을 하는 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야구에서 가장 전문화된 포지션은 단연 투수다. 작년까지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에선 투수들도 항상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타석에 서야 했다. 연구팀이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내셔널리그 경기의 200만 타석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투수가 타석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이후 투수로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가설을 검증했다.

예상대로 투수들은 타석에서 성적이 형편없었다. 하지만 이런 실패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타석에서 실패한 투수들은 이후 투구에서 평소보다 타자를 아웃시킬 가능성이 더 컸고 첫 세 타자 중 한 명에서 득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런 효과는 긴장감이 감도는 팽팽한 경기에서 가장 컸다고 한

다. 즉,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경험한 게 오히려 득이 돼 투수 본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팀은 이런 효과를 '강요된 과제 열위(forced task inferiority)'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후 당초 본업인 전문 분야의 일을 할 때 더 분발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연구팀과 인터뷰를 한 투수들은 타석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더 공격적으로 투구하게 된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한다.

직무가 세분화된 모든 관료적 조직에서 이는 활용해볼 가치가 있는 개념이다.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현장에서 서툰 솜씨로나마 잠깐 생산직 업무를 경험하게 하거나, 외부 고객을 만나 PT하기 전에 직접 서둘게 만든 파워포인트로 내부 PT를 해보게 하는 등 전문가의 비전문직 업무 수행은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이 연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만 몰입하기보다 일정 시간을 과거에 해 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해보는 과정이 본업의 전문성 강화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게 좋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천년 세월이 잠든 곳, 대릉원(大陵苑)

유일하게 고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천마총



경주 대릉원은 경주시 노동동과 황남동에 있는 신라 시대의 고분군을 말하며 노동동 고분군, 노서리 고분군, 황남동 고분군, 황오동 고분군, 인왕동 고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미추 이사금을 대릉(大陵)에 장사지냈다.'라는 글귀에서 따서 대릉원(大陵苑)이라고 지었다. 대릉원이라고 하면 좁게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이 있는 황남동 고분군 쪽을, 넓게는 바깥쪽의 금관총이나 봉황대와 같은 노서동, 노동동 고분군 등을 포함한다. 규모가 크면서 경주시 시가지에 있어 접근하기 좋고, 신라 왕릉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고분도 있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거의 필수로 찾는 곳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내부 관람이 가능한 유일한 무덤인 천마총만 성인 기준 3천원의 요금을 받는다.

### 천년의 세월이 잠들다.

대릉원은 경주 분지 한가운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라 당시에도 수도 서라벌 시가지 가운데에 있는 국가 묘역공원 같은 모습이었으리라 추정한다. 대릉원과 바로 옆에 붙은 쪽샘지구에서 발굴 조사해 보니, 신라 당시의 도시 기반 시설과 건물터가 대릉원 주변 지역에는 빼곡하게 차 있음에도 대릉원 일대에선 거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시가지로 가득 찬 대도시 가운데지만 대릉원부터는 건물을 못 짓게 관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릉원의 무덤들은 문자로 표기된 기록이나 비석류가 일절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편년을 알기는 힘들다. 무덤 주인의 이름이 밝혀진 무덤은 이사지왕이라는 명문이 발견된 금관총이 유일하다. 하지만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 때문에 도굴이 어려워 많은 유물들이 별 손실 없이 온전하게 남을 수 있었다. 이 유물들을 측정하여 대략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조성했다고 추정한다. 6세기 이후에는 왕릉이나 기타 무덤들을 대릉원처럼 서라벌의 중심부가 아닌 산이나 도시 외곽 쪽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릉원은 아무리 늦어도 7세기 초반 이후로는 더 확장되지 않았던 듯하다.

12만 6,500제곱미터의 넓은 땅에 23기의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고분 유적이 산재해 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고분은 제13대 미추왕릉과 거대한 표형분(쌍분)이 눈길을 사로잡는 황남대총, 그리고 고분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 천마총이 있다.

봄날 벚꽃놀이 명소로도 유명한 미추왕릉에는 '덧잎 군사' 설화가 전한다. 신라 초기에 이서국에서 신라를 침입했을 때 머리에 덧잎(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몰려와 그들을 물리쳤는데 군사들에게 꽂혀 있던 덧잎이 미추왕의 무덤 앞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후 미추왕릉을 별칭으로 '죽장릉'이라 불렀다.

황남대총은 두 개의 고분이 쌍봉나타의 등처럼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경주에서 가장 큰 고분이다. 1970년대 발굴조사 당시 5만 7천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나왔다. 북쪽 무덤에서는 금관을 비롯한 '부인대'라는 여자 허리띠와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가 나왔고, 남쪽 무덤에서는 남자의 뼈와 금동관과 무기 위주의 유물이 발견되어 부부의 무덤이라 추정한다.

대릉원을 대표하는 또 다른 고분인 천마총은 황남대총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옥황상제가 하늘에서 타고 다닌다는 말이 지상에 내려온 듯 상서로워 보이면서도 경쾌한 천마의 그림인 '천마도'가 바로 이 무덤에서 나왔다. 당시 천마도가 그려진 말안장 드리개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천마총'이란 이름을 가졌고, 고분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덤이 되었다. 천마총은 지름 4m, 높이 12.7m로 금관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나왔다.

대릉원 내의 황남대총 동쪽 포인트가 대릉원에서 인기 있는 사진 찍는 장소로 유명해졌다. 고분 사이에 목련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원래는 역사 유적 전문 사진작가의 작품으로서 그 구도가 알려졌는데, 이후 신라 고고학과 관련된 연구 저서의 표지에도 같은 앵글에 밤에 찍은 사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참 후에 SNS를 통해서 사진 찍는 포인트로 유명해져서 줄까지 서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포인트가 되었다.

출처 : 나무위키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31-1



포토존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릉원의 목련나무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아키엠**  
건축사필수앱

3,000 건축사 사용중!  
허가권자지정, 상주, 해체, 석면 올인원!!

지역건축사회 특별특별 할인 친절상담 02 3462 1336

# 트릴레마로 설명되는 현실 속에서 건축사의 소회

## 건축과 삶

정창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예림  
(전라북도건축사회)



트릴레마(Trilemma)는 그리스어로 숫자 3을 의미하는 '트리(tri)'와 '보조정리(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인 명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레마(lemma)'의 합성어이다. 3가지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어떤 선택을 해도 남은 두 가지 혹은 한 가지의 문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 이를 트릴레마라고 한다. 학술적 용어로서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영국의 성직자 필립 헨리(Philip Henry, 1631-1690)에 의해서였다. 이후에 트릴레마는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문제의 충돌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에서 퍼온 글이다.

이 말은 작금의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가 간 무역규제 등으로 인한 저성장,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화폐가치 저하로 인한 고물가와 코로나19 시기의 과도한 유통성 확대와 감세로 인한 국가부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개인의 부채 문제 등, 이제 세 가지 문제가 트릴레마의 상황이 되었다. 경제적 한계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건축이 아닌가

생각한다. IMF를 겪은 세대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축을 하고자 설계 의뢰하는 건축주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나마 건축하고자 하는 용감한 분들은 수익이 되는 아이템이 있는 건축만을 하려고 "건축사님 이런 아이템이면 수익이 날까요?", "은행에서 PF를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용적률은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나요?", "공법을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줄어요?"와 같이 질문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고려에서 나온다.

필자 역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PF 대출자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건축문화제가 있어 작품

을 출품하게 되었다. 건축 과정을 함께 하고, 입주 후에 만족감이 높았던 건축주의 부탁으로 출품을 하였지만, 나름 부지 조건을 잘 해석했고 완성도 역시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다. 속이 상했다. 현실에 차이는 일 상 속에서도 창작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는 있었기 때문이다. 심사는 누가했는지와 같은 궁금함이 있었지만 마음을 돌렸다. 원고를 작성하면서 다시 생각해 봐도 건축설계에 관한 평가와 심사는 건축사가 주가 되고 나머지 전문가들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건축문화제로 앞선 많은 나라들의 건축 관련 심의, 심사에 실무를 하는 분들이 주 심사원이 되는 경우를 보아 이제 관련 분야에서 건축사의 권리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 시로 보는 세상

### 밤에, 소년이 있었다

- 김근

새가 되어 날아갈 것 같아요  
소년이 내게 말했다 고요히  
나는 소년의 솜털 부송한  
귓볼을 쓰다듬었다 이따금  
소년의 귀에선 내가 쓰다 버린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문장들을 기워  
새를 만들었다 그보다는  
내 가슴을 오려  
새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어두운 벤치 위에 소년은  
내 무릎을 베고 누웠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동자를 흐리며 그만  
녹녹한 공기 속으로 소년은  
것을 치며 날아갔다  
나는 그저 돌아갈밖에  
없고 어린 소년의 껍질이  
어깨 위에 가볍게 걸려진 채  
자꾸 나부끼던 밤이었다

- 김근 시집

'당신이 어두운 세수를 할 때' 중에서/  
김근/ 문학과지성사/ 2014년

우리에게는 늘 그런 소년이 있다. 내가 돌아와 줘야 할 소년이고, 나를 돌보는 소년이다. 그 소년은 지금의 내가 되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소년을 조금씩, 자주 배반하며 내가 되었다. 그래서 가끔 소년에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한다. 미안해하는 건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서이고, 불편해하는 건 언제나 소년은 늙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은 내 어깨 위에 있지만 뒤돌아서면 또 어느 벤치에 홀로 앉아 있다. 소년은 혹시 울고 있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함성호·시인)

## | 발언대 |



최준하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디렘  
(전라남도건축사회)

누구나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중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자는 나름의 교훈(?)을 주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다. 이 책의 제목을 빌려 글을 쓰는 이유는 허가권을 접수하면서 우리 건축사와 허가권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적절한 문장이지 않나 해서이다.

2007년 처음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해 설계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 창업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진행하기까지 가장 머리 아픈 상황 중 하나는 같은 법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 허가권자를 설득시키는 것이다. 허가권자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건축주와 설계를 진행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고, 몇 배는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부분에서 의외의 다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설계의 고통보다 힘든 설득의 고난이 시작된다.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그 중 대표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 주택의 확장 발코니 부분에서, 지자체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으로 허가권자와 다름이 생긴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외측 벽으로부터 깊이 3.3미터 침실에서 확장 발코니를 1.5미터 적용하여 면적공제를 하고 설계에 적용했다. 나머지 전용되는 부분은 1.8미터이다. 그런데 담당자가 나머지 전용되는 부분의 깊이를 최소 2.1미터를 확보하라고 보완의견을 냈다. 나는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발코니 설치기준에 있잖아요"라고 했다. 필자는 그 어디서도 최소 2.1미터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과 기준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나는 발코니 구조 및 설치기준을 출력하여 담당자에게 내밀었고, 담당자는 그래도 최소 2.1미터는 확보해야 원상 복구했을

때 사람이 자낼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다.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 것일까? 건축사의 기준이 맞을까, 허가권자의 기준이 맞을까? 답은 누구의 기준도 맞지도 틀리지도 않다. 그저 생각이 다른 것이다.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서로 얼굴을 붉히며, 상처를 준다.

나는 허가권자와 원만하게 지내길 희망한다. 건축사가 되고서 허가권자와의 관계를 매번 생각해본다. 서로 싸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다름의 피로와 상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의 시작이자 마침표이다. 상호 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같은 건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자주 대화하고 교류를 하다보면, 언젠가 서로가 모두 만족하는 서로의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화성에서 온 건축사, 금성에서 온 허가권자

## 포토 에세이

늦가을 춘천 남이섬 은행나무 길

바람이 제법 차가운 늦가을, 하늘과 땅을 온통 노랗게 물들어 놓은 춘천 남이섬 은행나무 길. 춤추며 떨어지는 은행잎 비를 맞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로 유모차를 밀고 가는 모녀가 눈에 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바라보고 웃는 모습이 너무 정겨워 셔터를 누른다. 노란 은행잎 터널과 망토를 걸친 어린아이의 모습이 손끝에 닿는 차가운 바람결에도 미소가 번지는 풍경이다.



정병협 건축사 · 나은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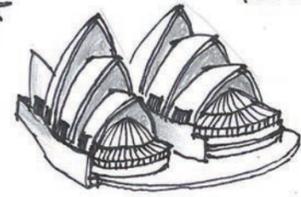
## || 건축만평 ||

강정삼 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계 공동생명



1. 실시설계, 착공이후설계변경등에서 반복적인 상호수정 및 확인이 어려움
2. 설계감리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구현하기 어려움
3.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수가 적어 구조설계협력이 어려움



건축과 구조가 분리발주되기 어려운 이유!

16,8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6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04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추천건축자재 안내



업체명	추천건축자재명	업체명	추천건축자재명	업체명	추천건축자재명
에어론	준불연 저항사 단열재 외	다뜻이엔씨	DM-954 내화 시스템 지붕판넬	윈도어/다승	순수 유리 난간(프레임리스 유리난간) 외
현대화학공업	준불연 EPS 듀오하이보드	삼명테크	에코전기온돌 EMF	이에이 바이오스	나노액티브 외
일신산업	로이단열재	쉐크코리아	Isokorb® 구조용 열교차단재	코스모폴	엑실드(심재준불연 경질우레탄보드)
LX하우시스	LX Z:IN PF보드 준불연Core	이반시스코리아	BIPV 최적화 CIGS 박막 태양광 패널'SKALA'	DSP	이녹스틸
국제방수케미칼	무기질도막방수재 폴리그린E	디케이보드	준불연단열재 디케이보드-X	광스틸	스피드블록 메탈패널
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두손	탄소공간단열벽체	KSC산업	KSCP 외
폴젠코리아	단열폴딩도어	세민기공	친환경 초무취 예폭시"올트라파워 ECO"외	아세아방재	내리고 승강식판난기
스타빌엔지니어링	Star 열교차단재	알파큐	알파큐창호	삼한씨원	점토(황토)벽돌 외
에이치케이	피쳐플로어링	부림산기	PI-N Foam(친환경 불연 무기 단열 내외장 보드)	예화엔지니어링	K-TOP 멀티터 비노출 복합방수
흥성이엔지	이지골드 구조토 페인트	아이오	BM2 PF Board	공간테크	내진형 천장 경량철골 시스템
대한폴리텍	고성능 친환경 준불연 PIR 단열재 NF Board Plus 외	한미르	불연코팅제 (HC 850A, HC 850B)	신영목재	[노블우드] 건축내장용 준불연목재(SY-NB-101)
플러스원	도막형 바닥재 G-FLOOR(지플로어) 외	코리아트렌치	알루미늄수관	킨테크코리아	단열 및 내진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창호
명신기업	친환경 알루미늄 천장재(우수조달제품)	대동퍼루프	스패니쉬 S형 대기외(와칸기외)	동국씨엠	럭스틸 외
에코바스	공방이 방지 친환경 욕실 천장재	신명마루	퀵스텝 하이브리드	중앙강재	태양광 금속기외(BIPV) 발전장치
경동산업	에스팀바(합성목재)	한진테크	무전자파 바닥난방 시스템(난방용전열관)	유에이치케이 시스템	뉴엔스톤 패널보드
대송창호	한국형 고성능 단열 시스템창호	호아홈텍	호아온돌	이투리노베이션	미세항균방진방충망
해마산업	디렉스 안전손잡이	비온텍	준불연단열재 안티화이어보드	스튜디오미콘	콘크리트스킨 시리즈
한도스페이스	KBM 외단열시스템	대한폴딩	이중유리 단열폴딩도어	씨에스코리아	CS 파인징크
청화요업	유니크시리즈 외	스틸라이트	냉간성형강구조(CFS) 자동화 패널라이징 시스템	제이엔에스엘엔터내셔널	레코스톤(천연석마감패널)